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NEWSLETTER

# 소리통

M E M B E R S L I E T M

## 세월호,지방선거,월드컵..

어느새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진행되기도 전에 전에 지방선거가 치뤄졌고, 이제는 월드컵으로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완성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이슈들 사이에서 의료민영화가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 인의협 소식

[임시이사회] 하반기 주요일정 및 활동계획, 2014~17 신임 이사 선임  
2014년 7월5일(토) 오후5시~6시  
장소: 정동 레이첼카스홀

[2014년 회원의 밤] 신임회원 환영회 및 심재식 이사장 퇴임식  
2014년 7월5일(토) 오후6시~9시  
장소: 정동 레이첼카스홀

## 이 달의 사진



인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함께 진행한 '서울시정평가 보건의료 포럼'에서 '서울시 보건의료 9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재선에 힘입어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의료민영화 반대 3대 긴급행동!

### 1.인터넷 집중 검색운동

6월 24일(화) 12시~1시 - 키워드 : "보건의료노조 파업"

6월 25일(수) 12시~1시 - 키워드 : "문형표 고발"

### 2.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

7월 2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홈페이지 (<http://www.jinbomedical.net>) 홍보자료실 19번 게시글 참조

### 3."나도 문형표를 고발한다" 운동

복지부 홈페이지에 '참여'란 '자유게시판' (<http://mw.go.kr>)에 "나도 문형표를 고발한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바일에서도 PC버전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논평

---

2014년 6월 10일

[성명]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다.-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 즉각 철회하라 -

## 보건의료뉴스

---

[조선비즈]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법 발의

[한겨레] 보건감이 있었다면 / 김양중

[프레시안] 영리 자회사·병원 사업 확장 빗장 풀렸다

[메디컬투데이] 38대 의협회장에 추무진 후보 당선

[부산일보] 폐업 진주의료원에 진주보건소 이전?

## 언론과 인의협

---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박근혜 정부의 끝없는 ‘집착’, 대체 목적이 뭘까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돈만 밝히는 병원 응급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 칼럼

## 우리 지역 건강수준에 관한 정보 하나!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유원섭

지난 5월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건강성과(기대수명 등 총 50점), 질병예방(흡연율 등 총 25점), 의료효율(평균 재원일수 등 총 10점), 의료공급(1인당 의사 수 등 총 1점) 분야에 걸친 총 25개 건강관련 지표(2012년 기준)를 활용하여 작성한 건강지도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점수를 종합한 결과 건강순위 1위인 기초자치단체는 시 지역은 전북 전주시, 군 지역은 울산 울주군, 구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5개 구 중 3개구가 상위 10위(3위, 8위, 10위)에 들었는데, 구 지역 상위 10위 중 서울시 4개 구, 울산 2개구, 광주 1개구이니 대전의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의 건강순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 다음인 2위였다.

개인적으로는 보편적인 건강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건강순위 결과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은 건강순위가 높은 지역만 큼이나 건강순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어느 곳인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중 건강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광역자치단체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이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의 경우 가장 건강점수가 높은 유성구는 총점 79.7이지만 건강점수가 가장 낮은 대전 동구는 65.3점으로 차이가 14.4점이다. 광역자치단체 1위인 울산광역시의 4개 구는 건강점수가 가장 높은 구와 가장 낮은 구의 점수 차이가 12.4점으로 구별 차이가 대전광역시 보다 더 적다. 반면 자치구 수가 5개로 대전시와 같은 광주광역시의 구별 건강점수 격차는 16.6점으로 대전광역시보다 더 크다.

이러한 지역별 비교 통계는 통계 수치의 타당성, 신뢰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 해당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고,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지역을 확인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노하우는 덤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같은 전국 공통의 이슈 외에도 지역과 지역 내 격차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4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이번 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역의 이슈와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투표로 검증받는 의미가 이전 선거보다는 감소한 듯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방행정과 지방의정 활동을 눈여겨보며 적절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는 남아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건강관련 정책과 더불어 건강점수도 확인해보자. 실제 체험하고 계신 경험에 비추어 점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미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주)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모든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25일자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773163&cloc=olink|article](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773163&cloc=olink|article)

# 책소개

## 피로의 심연, 내 안의 甲乙을 넘자

편집국 김종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피로' 하면 '간'을 연상시키게 할 정도로 익숙한 광고다.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며 간기능 검사를 원하는 외래환자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간을 비롯한 주요기능 검사결과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환자도 가우뚱, 의사도 가우뚱하며 술, 담배, 식사, 운동이라는 생활습관개선만 공허하게 나누곤 한다. 피로는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이건만, 간으로 귀결되지 않는 그 피로의 정체는 무엇일까?

### 빙산의 일각, 피로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는 표면적으로 '피로'라는 딱지를 붙여 내보인다. 그 피로의 심연에는 구체적인 삶의 서사가 떠받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피로'라는 우리들의 언어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다. 빙산은 수천년 역사의 산물이듯이, 우리들의 삶도 수천년의 인류 역사를 담고 있고, 개체 수준에서도 수십년의 인생사를 담고 있는 하나의 빙산이다. 그러하니 몸의 피로는 개별 신체기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왜곡된 질서를 통으로 바라보라는 신호인 것이다. 피로에 대한 신체기관별 단순접근은 박물관의 화석처럼 피로한 삶의 생생한 서사를 잃어버리고, 시스템화된 의학적 진단수치에 삶을 꿰어 맞추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피로는 커켜이 누적된 삶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기에 개별신체기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몸은 그 욕망을 표현한다. 현대인들의 욕망은 치명적이게도 자신을 착취하는 회로를 가졌다는 것이 <피로사회>가 전하는 말이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경영자입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피로사회>를 읽다보면 '나를 경영하는 나'의 그 '나'는 착취자이면서 동시에 피착취자가 된다. 2013년 5월 한국사회의 시사용어로 표현하면, '갑을甲乙'관계를 한 몸에 내면화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내가 甲이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乙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그 甲과 乙의 한 몸 결합체를 이름하여 '성과주체'라고 부른다.



후기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착취를 위해 '자기경영' 담론을 만들었다고 <피로사회>는 말한다. 내가 착취자로서 나를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효율성, 그것이 자기경영의 실체라는 것이다. '자기경영'이라는 말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미 프로그래밍된 매트릭스 속의 코드임을 연상해보자. 저자는 예리하게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리라이팅하면서 이해를 돕는다. "성과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

고 믿지만 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묶여 있다. 끝없이 다시 자라나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는 독수리는 성과주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2의 자아이다”(81p)

피로의 심연, 내안의 甲乙관계

"오늘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금지와 명령의 부정성을 철폐해가며 자유로운 사회를 자처하는 성과사회다. 성과사회를 규정하는 조동사는 프로이트의 '해야 한다sollen'가 아니라 '할수있다k önnen'이다" (83p). 성과사회의 성과주체는 '자유로움'과 '할 수 있음'으로 무장한 甲이 된다. 하지만 그 성과주체는 분주함 속에 휩쓸리고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乙이 되기도 한다. 甲으로서의 나는 자기계발과 '할 수 있음'으로 당당하지만, 그 甲이 착취하는 대상은 또 다른 나인 '乙'인 것이다. 그래서 甲乙을 내면화한 성과주체는 스스로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자기를 착취한다고 한다. 외부로부터의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큰 배움보다는 스펙 쌓기가 대학생들이 되어 버린 대학생들은 매우 바쁘다. 그 바쁨은 초등학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대학생은 오히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시간'이 생길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다. 출근길 전철은 스마트폰 행렬로 진풍경을 이룬다. 스마트폰 중독을 甲乙관계 성과주체로 연결하는 것이 다소 비약일지 몰라도, 분주함과 잠시도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성과주체의 중요 일상사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불과 수년 만에 일상생활의 풍경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금단증상이라는 의학적 용어는 술과 담배 마약중독자에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국민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어느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곰인형 놀이기구 그리고 책을 보여주고 선택하게 해보았다. 60% 이상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집었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스마트폰 액정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해지더라. 스스로 심심할 권리! 그 심심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다운 창조활동인 놀이가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는 행위는 발달장애와 조기치매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성과주체를 이렇게 육성해하고 있다. 악마가? 아니 성과주체인 우리가!

과잉은 탈진을 낳는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열중하느라 나중에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바쁘며 불안감을 달고 산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의 열풍 속에 자신의 '乙'을 태운다. 피로는 쌓여가지만, 왜 피로한지 탐구하지는 않는다. 마치 매트릭스 코드처럼 우리들은 후기 자본주의의 멈출 줄 모르는 성과주체로 프로그래밍된 주체일 뿐이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완'능력은 이런 성과주체에 어울리지 않는가 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헤민 스님)이라고 하듯이, 분주함을 넘어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새로운 것을 낳을 수 있는 창조의 힘이거늘. 그래서 니체는 1878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이미 활동과잉으로 치달는 현대문명사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달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위하여

이 책의 옮긴이는 '피로는 성과주체의 만성질환'이라면서, 자신을 마모시키고 낙오자로 느끼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말한다. 甲乙관계를 내면화한 성과주체는 피로하고 우울한 이유를 모른다. 아니,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오히려 성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 우울증에 부대끼는 부적응자들이 건강의 씨앗을 품고 있지 않을까. 몸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변화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여 멈추고 머뭇거리며 甲乙관계에 처한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 '나로부터의 혁명'의 시작이다. 그 '분노'는 외부의 甲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甲을 향한 것이다. 자기계발과 자기경영 담론에 총체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노이다. 그래서 과잉, 불안, 탈진 그리고 무능력으로 귀결되는 甲乙 자기착취 궤도를 탈출하여 다른 길 위에 우뚝 서는 것이다.

은행에 다니며 생활철학자로서 주경야독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요즘 프랑스 철학자 랑시에르에 관심이 많은데,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란 책이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혁명시기 프롤레타리아들이 밤마다 모여 철학을 공부한다는 내용이라고. 나를 태우는 성과사회에서 의사들도 산업혁명시기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주경야독하는 문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고된 노동을 마치고, 노동의 가치를 밝히는 밤, 그 철학의 밤을 위해. 그래서 甲乙관계를 내면화한 심연의 피로를 떨쳐버리자. 멈추고 이완하고 다시 집중하여 스스로 뚝뚝한 길을 걷기 위해.

주1) 이 글은 2013년 청년의사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주2) 필자는 가정의학과전문의로 원주의료생협에서 진료중이며 마을건강공작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공작소 <http://cafe.daum.net/community-health>

# 안내

## 인의협 2014 회원의 밤

**일시** \_ 2014년 7월 5일(토) 오후 6시  
**장소** \_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10번 출구 : 약도참조)

---

**1부 신입회원 환영회**

“회원의 밤” 환영사	06:00
인의협의 역사와 현재	06:10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06:30
“이현식의 여행자의 인문학 노트”	07:00

---

**2부 심재식 이사장 퇴임식**

심재식 선생님 소개	07:40
심재식 이사장님 퇴임사	07:50
신임 이사장 취임사	08:00

---

**저녁식사 - 뒤풀이**


